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뉴스레터

No.1  
2020. 봄

발행일 2020.4.27 • 발행처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 T 064.784.9446 • www.ramsar.co.kr

## CONTENTS

02

동백동산습지센터

동백동산의 봄 소식

03

선홍장터

고사리

04

동백동산

방아깨비, 자주괴불주머니

쇠뜨기, 할미꽃



05

선홍생태관광

06

마을 이모저모

08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 동백동산습지센터의 봄소식

동백동산습지센터가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관 상태입니다.

동백동산의 봄은 아기자기한 풀꽃들이 살포시 얼굴을 내밀고, 나무마다 초록의 새잎이 자라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이 재잘대는 소리에 몸과 마음이 저절로 숲을 향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백동산은 단체 관광객이 확연히 줄었지만, 가족이나 커플 등의 일반인 탐방객들은 줄지 않고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휴관으로 대면 탐방 안내는 하지 못하지만 전화 문의는 받고 있어 탐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주 외부화장실을 방역하고, 안내판도 정비하고 탐방로도 자주 들여다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탐방시 화장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선홍꽃 동백동산 유스호스텔 주차장 내에 화장실을 만들어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동백동산습지센터에서는 동백동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습지 및 환경가치를 전달하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하며 청소년들의 습지·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람사르습지 홍보·전시, 탐방객 안내가 이루어져 습지센터가 활기차게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 동백동산 연혁

- 1971년 선홍 동백동산 제주도 기념물 지정
- 2010년 11월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
- 2011년 3월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지정
- 2013년 환경부 생태관광지 지정
- 2014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지정
- 2015년 3월 동백동산 습지센터 개관
- 2015년 5월 생물다양성 및 습지의날 기념행사
- 2018년 10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 ◆ 동백동산 습지센터의 오늘

-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지정일 : 2011년 3월 14일
  - 동백동산습지센터 개관일 : 2015년 3월
  - 제주도 환경관리과 소속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수탁 운영
  - 동백동산 습지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16명)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사무국, 동백동산습지센터 습지·생태 해설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해설사 및 환경감시원,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해설사,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환경감시원

# 선홍꽃 고사리

나물 중에 으뜸, 봄철에 만날 수 있는 선홍꽃 고사리를 소개합니다. 봄철 벚꽃이 필 무렵 선홍 삼촌들 손은 바빠집니다.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고사리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1년 제사와 명절을 위해 손님

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고사리를 꺾어 삶고 말려 보관합니다. 우리 마을의 선홍 고사리는 천연자원으로 생물권 보전지역브랜드 인증을 받은 상품입니다. 해가 갈수록 고사리가 자생하는 환경이나 면적이 줄어들고 꺾는 일 또한 힘이 듭니다. 올해도 삼촌들 가정에서 쓸만큼 갈무리 해두고 여유분이 있으면 선홍장터로 보내주세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장터에서 판매하겠습니다.

### \* 고사리 효능

- 1. 나트륨 배출 및 심혈관 질환 예방
- 2. 해열작용 및 살균작용 효능
- 3. 변비예방 4. 다이어트 효과
- 5. 면역력 향상 6. 피부미용
- 7. 골다공증 예방

### \* 부작용

고사리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 주말장터 조합원 모집

동백동산습지센터에서는 선홍장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해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 번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동백동산습지센터 잔디마당에서 선홍 주말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에는 운영하지를 못했지만 앞으로 운영될 선홍장터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직접 만든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탐방하시는 분들에게 선홍마을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말장터 또한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백동산습지센터의 휴관으로 선홍장터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차차 정상

업무로 들어가면 조합원들의 농산물과 물품을 사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말장터에 농산물이나 먹거리(쑥부침개, 도토리묵, 삶은 햇고사리 등)로 함께 할 조합원도 모집합니다. 모쪼록 조합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선홍의 농산물을 보내주셔서 선홍장터 운영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 팀 장 김호선 010-8382-8332  
장터담당 강보혜 010-7337-1341



아침 방아 짚어라, 저녁 방아 짚어라,  
콩콩 짚어라 ~♪ 방아깨비



뒷다리를 푹 잡고 있으면 방아를 짚는 것처럼 움직이니 방아깨비라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데 한경면에서는 ‘심방말축’, 서귀포에서는 ‘산디말축’, ‘상동말축’, 구좌에서는 ‘소금바치’로 불렸다. 풀밭에서 ‘따다닥 따다닥’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날아가면 분명 방아깨비 수컷인데 1초에 약 30회로 빠르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간다. 하지만 암컷은 덩치가 커서 얼마 날지 못하고 푹 떨어진다.

요 녀석은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생명력 짱! 쇠뜨기

고생대부터 4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해 온 식물, 쇠뜨기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금처럼 이른 봄에는 길쭉한 버섯처럼 땅에서 누런 줄기가 쭉쭉 올라온다. 포자(흫씨)를 품은 포자낭이 뱀 머리를 연상케하는데 이 부분이 생식줄기이다. 이 생식줄기가 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사그라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초록색 솔잎같이 생긴 풀이 자라는데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줄기’라 부른다. 하나의 중심 줄기에 솔잎 같은 바늘잎이 층층이 빙 둘러나서 쇠뜨기 군락을 보면 마치 미니 침엽수림 같은 느낌이다. 재밌는 것은 원자 폭탄이 떨어져 폐허가 된 히로시마 들판에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운 것이 쇠뜨기라니 놀랍다.



보물 주머니, 자주괴불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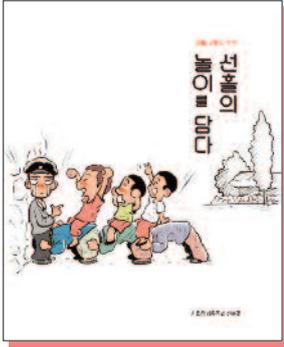
제주의 4월에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들꽃이다. 괴불주머니는 옛날 허리춤에 차고 노는 노리개다. 꽃을 피운 모습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다. 괴불주머니는 현호색과 꽃 모양이 비슷하다. 대개 괴불주머니는 노란색이고 현호색은 자주색 비슷해서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자주괴불주머니는 색깔마저 현호색과 같아서 멀리서 보면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크기나 꽃대에 꽃이 달린 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괴불주머니 쪽이 현호색보다는 꽃이 크고 꽃대를 따라 층층히 달려있다. 봄날 산기슭에 무리 지어 피어있는 자주괴불주머니 꽃밭은 봄 분위기를 한층 더 밝고 환하게 해 준다.



할미꽃의 전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늙은 할머니가 두 손녀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큰 손녀는 얼굴은 예뻐지만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고, 둘째 손녀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왔다. 얼굴이 예쁜 큰 손녀는 가까운 이웃 마을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고, 못생긴 둘째 손녀는 고개 너머 마을의 아주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됐다. 하지만 큰 손녀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홀로 계신 할머니를 모른 채 했다. 할머니는 마음씨 고운 둘째 손녀가 너무 그리워 둘째 손녀를 찾아 산 너머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할머니는 너무 지쳐서 둘째 손녀가 사는 마을 고갯마루에서 죽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손녀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고 통곡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둘째 손녀는 뒷동산 양지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 드리고 늘 슬퍼하면서 바라보았다. 다음 해 봄이 되자 할머니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피었는데 마치 할머니의 굵은 허리같이 땅으로 굽은 꽃을 피워냈고 그 꽃을 둘째 손녀는 할미꽃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 마을문고 3번째 <선홍의 놀이를 담다> 책 발간

## 선홍 삼촌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만화로 그린 '선홍의 놀이 문화'

돌맹이, 나뭇가지, 흙만 있으면 모든 놀이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달빛만으로 감사하며 놀았던 선홍의 삼촌들. 달빛을 벗 삼아 뛰어놀던 삼촌들의 어린 시절의 놀이를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네 아이들과 놀았고 재밌게 만화로 그려 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놀이의 기록이 아니라 삼촌들의 추억이고 문화입니다. 더불어 그것을 재밌게 만화로 그려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불과 50년 전의 놀이, 뛰고 다치고 협력하고 얹히고설켜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내는 옛 놀이들의 매력을 지금의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옛 놀이 문화를 알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선홍에서 생태관광을 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지역의 문화 기록은 주민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선홍 삼촌들이 늘 행복하게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탄소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 '다같이 돌아 동네한바퀴', '동백꽃피다' (2020년 기후변화 적응실천프로그램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가뭄,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의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의 기후변화 적응인식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선홍생태관광은 2015년 탄소인증프로그램을 받고 2019년 저탄소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을 받은 두 개의 상품을 공모하여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선홍은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 홍보 방안과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8월에는 '다 같이 돌아 동네한바퀴' 11월에 '동백꽃피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

로그램 진행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심각성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고 '저탄소 생활' 분위기 확산을 기대해봅니다.



## 2020년 부상철 이장 취임

이장을 맡아 마을 일을 살핀 오중배 이장이 임기를 마쳤고, 부상철 이장이 새로 임명되어 3년 동안 마을 일을 두루 살피게 되었습니다. 부상철 이장의 취임사입니다. (2020.1.22 마을총회에서)



2020년 경자년, 부족한 저를 투표 없이 이장으로 선출해 주신 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홍리는 저의 고향이자 저의

젊음과 저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동고동락하신 마을 분들과 함께 이장이라는 직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 마을을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늘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잘못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전입해 온 분들과 서로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조화로운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믿고 도와주신다면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홍1리 요리학교 '뽕그랭이'에서 꼬마요리사를 모집합니다

**2020 마을교육공동체 '선홍1리 요리학교'**

**뽕그랭이** Cooking♥

삼촌요리사와 함께하는 요리학교  
'뽕그랭이'에서 꼬마요리사를 모집합니다.  
직접 개발한 음식으로 즐기는 파티와 푸드 드로잉!  
친구들아~! 맛있게 만들어서 뽕그랭이 먹자!

모집기간 2020. 4. 20 ~ 4. 29  
대 상 요리학교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선홍생태관광) 010-6600-1196  
접 수 ramsar.co.kr  
사업기간 2020. 5. 1. ~ 2021. 1. 30.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후원 : 선홍1리 마을문고  
뽕그랭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 2020년도 선홍1리 개발위원

직책	성명	주소
위원장	부상철	중산간동로 1305
부위원장	김문환	선홍리 2597-3
개발위원	김기홍	선홍동1길 14
	안시택	선홍동2길 27
	강보열	선홍동2길 5
	고진협	선홍동2길 20-8
	김영애	선홍동1길 31-16
	현승호	중산간동로 1286
	오평간	선홍동1길 36
	한재건	북선로 365-1
	고강석	중산간동로 1519
감사	고정렬	선홍서5길 11-3
	안창범	선홍동2길 43
노인회장	김성만	선홍동2길 7
	부광수	중산간동로 1311
청년회장	안재형	선홍동2길 20-9
부녀회장	박선옥	선홍동1길 4
영농회장	박삼수	선홍동2길 3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이사장	부영주	선홍동 1길 26-1

### 4.3 속 태순이와 태옥이



고병문 삼촌

새벽녘 식구들이 곤히 잠자는 시간에 느닷없이 총을 뎨 군인들이 신발 신고 들이닥쳤다. 군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당에 끌어 앉혔다.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부모를 무참하게 죽여버리니 그때 태순이는 9살, 태옥이는 7살이었다. 오누이는 부모 시신 위에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울었다.

우는 소리에 친척 할머니가 와서는 오누이를 데리고 있다가 한국보육원에 오누이를 보냈다. 보육원에서 오누이는 춥고 배고프고 아프기를 몇 년, 둘은 폐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친척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오누이 시신을 거두어 길옆 공터에 묻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오누이가 묻힌 곳에 길을 넓히게 되어 친척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 그때 그렇게 도와주었던 친척 할머니는 이제 95세 나이로 요양원에 가셨다.

4.3에 죽은 사람 중 그래도 남아 있는 식구가 있으면 그분들의 혼이라도 찾으려 노력하지만, 태옥이와 태순이처럼 대가 끊긴 집들은 모두 잊혀간다.

4.3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부모를 잃은 자식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 억울하게 헤어진 가족의 아픔을 잊고 살아선 안 되고 대가 끊긴 집들도 잊고 살아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지금에 와서 하게 된다.



고병문 삼촌 해설사의 4.3 해설

###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서 이름 바꾼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의 현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서 이름을 바꾼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심의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다섯 가지 조건과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사업부지 주변 마을인 선흘리와 북촌리를 비롯해 램사르습지도 시지역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업자는 앞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 협의, 제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남아있습니다. 선흘은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개발이 아닌 건 아니다. 꽃자왈은 훼손 될 것이고 분명히 생태계 교란은 일어 날 것이다.

조천읍이 세계 최초 램사르습지도도시로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동백동산과 200m인 꽃자왈의 개발은 국제협약의 의미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인 인근마을 상생협약(선흘1리는 반대)과 램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또한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소식 알립니다



어느덧 들에는 노란 유채꽃과 바람에 날리는 벚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봄의 4월을 맞아 주민과 조합원님들께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계시는 주민분과 조합원님들에게 협동조합 소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동백동산의 보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그리고 선홍1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창립 이후 두 번의 정기총회를 지내며 주민과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백동산을 찾는 여행자와 탐방객들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이 동백동산 보전을 위해 하는 일들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줌으로써 선홍꽃동백동산은 전국 어디에 가서도 빠지지 않는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습지·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체험프로그램 운영, 선홍장터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을 이루고 있으며 이 수익의 일부분은 동백동산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복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소하나마 정성과 마음을 담아 생신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이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함께 협동조합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의 현재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창립 : 2018년 2월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조합원 (20년 3월 31일 기준) : 168명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의 주사업
  - 동백동산 보전사업
  - 생태관광사업
  -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 주민복지사업

### 삼촌~~

생신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1월 (4)부옥룡 (12)박인태 (24)한정궁 (28)고성준

2월 (2)이대화 (9)김부자 (12)김복수 (21)전복호 (27)김옥순

3월 (14)황규희 (17)김풍자 (28)구자홍

4월 (7)조수용 (10)조창래 (11)부성매